

장백산천지

제 225 호

2014 년 2 월 22 일

토요일



미국 뉴욕



말레이시아

세계 각 지역 파룬궁수련생들의 새해 풍채 (风采)

【밍후이왕】 2014 년 음력설 기간 세계 각 지역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형식으로 현지의 화인 군중들과 함께 즐겁게 새해를 보내면서 진상을 알리고 새해를 축복했다.

파룬궁은 뉴욕 플라싱(法拉盛) 대 행진에서 새해 축복을 가져다 주다

2014 년 2 월 8 일, 뉴욕플라싱 거리는 연주소리로 하늘이 진동했다. 길거리 양쪽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없이 모두 일년에 한번씩인 행진 대오를 고대하면서 갑오년(甲午年)의 시작을 경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룬궁팀의 천지를 부양(俯仰)하는 정의로운 기세와 당당하고 웅장한 악곡, 다채로운 새해 축하하는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가는곳마다 사람들은 잇달아 사진을 찍고 녹화 하면서 기쁜 마음을 표달했다. 이것이 바로 '불광이 널리 비추니 만물이 혜택을 받다. (佛光普照, 惠及万物)'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새봄은 당신을 위해 왔고, 찌싼런은 하늘의 복을

내리네', '따스한 봄바람에 집집마다 기쁨이요, 마음에 불법(佛法) 담고 새해를 맞이 하네'

라는 독특한 대련(對聯)을 정성들여 만들어 사람마다 모두 파룬불법(法輪佛法)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것을 희망했다.

파룬따파 수련생들의 활기와 열정에 넘치는 대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찌싼런(真善忍)' 리념이 가져온 광명과 희망을 느끼게했다. 대행진 주최 측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플라싱 상회 총이사 두 피터(杜彼得)도 "저는 파룬궁팀이 제일 멋지다고 매년마다 시장사무실이든 그 어디에서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대만 등불 축제, 파룬궁 꽃등 눈부시게 등장

2014 년의 대만 등불 축제는 난타우(南投)에서 열렸는데, 파룬궁 수련생들이(뒷면에 계속)



오문



새해 동안 대륙 모 시

(앞면의 계속) 8 년 연속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파룬따파 등구역(灯区)인 초툰진(草屯镇)식물공원은 더욱 눈부시게 꾸며졌고, 제작된 꽃등의 규모가 아주 컸다. 2 월 6 일 밤의 성대한 점등 의식(点灯仪式)에는 수천여명의 민중들이 모였다. 주요 등(主灯)인 “법선(法船)”에 불을 켤때는 “너무 예쁘다” “칠색 찬란하다” “정말 화려하다”는 민중들의 감탄의 소리

가 잇달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줄을 지어 ‘법선’에 올라 기네스(吉尼斯) 세계 기록을 딸수 있다는 최대 꽃등선을 체험(体验)했다.

난터우현의원 라오쯔유(廖梓佑)는 “행복을 듬뿍 담은 신의 배입니다”라고 감탄했고, “꽃등 제작 과정에, 또 전체 장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찌찌런(真善忍)을 깊이 체험할수 있었으며 모든 파

룬궁 수련생들의 완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난터우 관광 협회 위츠향(鱼池乡) 주임 탕위사(唐玉霞)는 “이번 행사는 파룬궁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선’은 아주 장관인데 저는 파룬궁에 대해 더욱 깊이 료해하고 싶습니다.”라고 감탄했다. ◇

연변 주 정법위원회 서기 강방 (康芳) 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죄행 (편제2)

2. 민중을 협박해 ‘승낙카드’에 서명시키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을 한다.

주정법위원회와 ‘610’은 연변 각 지역 중공사당(中共邪党) 인원들을 협박하여 사회구역 가도(街道) 도처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화, 흑판보와 대형 현수막(横幅)을 붙이게 했다. 연길시 사회구역 가도 공작인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위 ‘승낙카드’에 서명하도록 핍박하면서 세인을 독해했다. 어떤 층집복도(楼道)에는 아주 많이 붙였으며 또는 길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서명하라고 했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곧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중을 협박해 ‘승낙카드’에 서명하게 함에 팔가자림업국이 가장 사악했다. 림업국 정법위서기 자오징(赵晶)과 ‘610’주임 장원신(张文信)의 지휘하에 악경 자오즈쿠이(赵志奎), 왕자후이(王家辉)와 성이 둥(董)인 악경들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승낙카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으며, 파룬궁수련생이 서명하지 않으면 곧 납치했다. 팔가자림업국 정법위원회와 ‘610’, 각 사회구역인원들은 또 군중들에게 파룬궁을 모함하는 전단지 등을 발급했으며, 또 림업국 선전란의 전면에 파룬궁을 모함하는 그림과 글을 올려 군중을 박해했다. ‘610’주임 장원신은 림업국 각

부서를 찾아 가서 직원들을 강박하여 ‘승낙카드’에 서명하게 해 군중들의 반감을 자아냈다.

3. 강제로 가마를 뜯어내고 회손해 공민의 알 권리를 침범 하다

연변지구의 백성들은 가마를 설치해 한국 위성신호를 수신해 자신이 즐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특히 해외 신탕런(新唐人)방송프로는 관중들의 호평을 받는다. 원인은 신탕런(新唐人)방송프로는 보도가 진실하고, 새롭고 우아하며, 시청한 사람들은 모두 수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짜 아주 좋은 일이며,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공사당은 백성이 그것의 부패와 폭정을 간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거짓은 부단히 드러나고, 기편 당했던 민중들은 부단히 각성하고있다.

연변지역 소위 ‘법 집행(执法)인원’들은 각 향, 진 사회구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군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위성에 대해 조사, 등기하고 사진을 찍어 군중들을 교란 했다. 더욱이는 경찰이 대낮에 강제로 가마를 뜯어내고 회손했으며, 심지어 위성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군중의 집을 수색해 민분을 크게 조성했다. 연길경찰은 불법으로 류춘리(刘春立), 박문철(朴文哲), 박태호(朴泰浩), 김순선(金顺善), 리기옥(李奇玉) 등 열심히 해외신탕런(新唐人)방송프로를 전파한 파룬궁수련생들

을 납치하고 고문을 가했다.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태호(泰浩)와 김순선(모자관계), 리기옥 등은 외지에게서 농민을 도와 신탕런위성접수를 조절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전화로 도청하여 행방을 알고있던 경찰들에게 납치되어 전문 고문을 하는 곳에 끌려 갔다. 거기에는 전문 전기고문을 하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피해자 머리를 씌우고 전류크기를 조절하여 피해자 고통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런 고문기구들은 큰 전류의 운행하에 피해자의 내장에 출혈이 일어나게 하며 피해자는 큰 망치로 맹렬한 타격을 당한 듯한데 그 고통정도는 형용할 수 없다. 경하면 피부아래가 출혈하여 혈반이 생겨 오래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30 여세인 태호는 불법고문을 너무나 잔혹하게 당해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차마 들을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번갈아가면서 긴시간 그에게 혹형을 가하다가 기진맥진 했다. 경찰은 조를 나누어 24 시간 료번으로 끊임없이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혹형을 감행하던 경찰은 기진맥진한 나머지 파룬궁이 진짜로 공이 있다고 말한다. 경찰은 혹형을 감행하는 박해임무를 완성하는 중 휴식기간에 매사람마다 모두 일정한 액수의 장금을 받기도 한다.